

-(으)ㄴ지라도

~할지라도 — 양보, 비록 ~하더라도

격식 있는 문체의 단순한 양보 표현으로, 다음을 문어로 끌어올린 형태입니다: -더라도. 다음 표현이 가진 나무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: -기로서니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지라도	가다 → 갈지라도
받침으로 끝남	-을지라도	좋다 → 좋을지라도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지라도
과거	-았/었을지라도	갔을지라도
자주 함께 쓰는 말	아무리, 비록	비록 늦을지라도
대가 감수	-(으)ㄴ지언정	굶을지언정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ㄴ 짧은 형태를 쓰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만들다는 다음이 됩니다: 만들지라도. 하나의 어미로 붙여 쓰며, 안에 시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: 갔을지라도.

앞 절은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고, 뒤 절은 그와 관계없이: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

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. -더라도와 똑같이 보통 부사 아무리나 비록이 앞에 옵니다.

다음과 비교하면 -(으)ㄴ지언정 이것은 거절하기 위해 대가를 감수하는 표현이지만, 이 표현은 단순히 인정하고 계속 나아갑니다. 둘은 모양이 비슷하므로 일찍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■ 예문

- 1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
- 2 비록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시작이다.
- 3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시도할 가치는 있다.
- 4 그가 이미 떠났을지라도 편지는 보내겠다.
- 5 직접 만들지라도 품질을 낮출 수는 없다.
- 6 시간이 걸릴지라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.

■ 비교

-더라도

뜻은 같고 -더라도는 일상적인 문체입니다. -더라도는 말에도 쓰이고, -(으)ㄴ지라도는 문장을 문어나 격식체로 만듭니다.

힘들더라도 하세요. (구어) /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. (문어)

-(으)ㄴ지언정

구별해 둘 짝입니다. 지라도는 인정하고 계속하며, 지언정은 무언가를 거절하기 위해 대가를 감수합니다.

어려울지라도 하겠다. (그래도 하겠다) / 굶을지언정 받지 않겠다. (차라리 굶겠다)

-기로서니

기로서니는 나무라기 위해 인정하고, -(으)ㄴ지라도는 그런 날카로움 없이 인정합니다.

바쁘기로서니 연락도 못 하나? (나무람) / 바쁠지라도 연락은 해야 한다. (서술)

■ 주의

✗ 직접 만들을지라도 품질은 지켜야 한다.

○ 직접 만들지라도 품질은 지켜야 한다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같습니다.

✗ 어려울지라도 굶지는 않겠다. — ‘차라리 고생할지언정...’이라는 뜻으로

○ 굶을지언정 손을 벌리지는 않겠다.

무언가를 거절하기 위해 대가를 감수한다는 뜻이면 -(으)ㄴ지언정을 씁니다.

✗ 야, 힘들지라도 해 봐.

○ 야, 힘들더라도 해 봐.

-(으)ㄴ지라도는 문어 형태입니다. 대화에서는 -더라도가 자연스럽습니다.